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금리·유가 부담 지속되며 하락

중동 긴장 고조·사우디 산유량 감소에 국제유가 급등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5% 근접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909.91pt (-1.76%)	820.64pt (-1.95%)	1,090.22pt (-1.97%)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346.40 원 (-3.5 원)	4.5530% (+10bp)	7,627.00pt (+0.38%)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18,674 억	+5,117 억	-4,141 억
외국인	-23,040 억	-3,136 억	-5,566 억
기관	-12,251 억	-2,159 억	+10,453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와 미국채 금리 상승 등 대외 악재가 증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장기채 매입 규모 확대에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5%선에 근접하며 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 8월 PPI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물가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오늘 밤 미국 8월 CPI 발표를 앞둔 점도 경계감을 키웠습니다. 이날 KOSPI는 1.76%, KOSDAQ은 1.95% 내렸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19.4조원, KOSDAQ은 약 6.4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약 2.3조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를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에서 약 1.2조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HD현대중공업의 발전엔진 및 SMR 생산능력 확대 소식에 조선·엔진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오름세에 금융, 보험주가 상승했습니다. 대미투자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며 원전주가 반등했습니다. 한편, 고금리 부담에 반도체, 바이오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서는 삼성화재(+6.03%), HD현대중공업(+5.62%), KB금융(+2.60%)이 올랐고, 한미반도체(-8.70%), 에코프로비엠(-7.08%), 삼성전자(-3.53%)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